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를 우리나라가 설립하는 방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세계유산 자료 한국에서 모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유치 최종 승인

각국의 세계유산 관련 해석 및 해설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유네스코 관련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서게 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협력기관인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를 우리나라가 설립하는 방안이 승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해석센터 설립 권고안이 지난달 17일 제20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유네스코 최고 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설립이 승인됐다.

센터는 ▲세계유산의 해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분야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해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디지털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는 기관이다.

세계의 세계유산 관련 해석 및 해설 자료를 모아 연구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네스코 협력기관을 유치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며 문화분야에서는 두 번째다.

세계유산을 다루는 기관으로서는 처음이며 2010년 문화재청이 유치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유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해석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고 하반기에 유네스코와 협력기관 설립을 위한 협정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1년 상반기에 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설립추진단은 세종시에 마련돼 향후 센터도 세종시에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영록 문화재청 연구사는 "이번에 승인된 센터가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처음 다루게 되는 기관"이라며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데 있어 전 세계의 자료를 모으게 된다는 차원에서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 레드콘 뮤지션, 인디밴드 중심에서 웅비하다

홍대 생기 스튜디오서 쇼케이스 성료

전북도와 (재)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전북콘진)은 지난 22일 서울 홍대 생기 스튜디오에서 전라북도 레드콘 뮤지션들의 서울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Born To Be Red:cor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라북도 레드콘 뮤지션들이 올해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정규앨범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크장르 뮤지션 '슬로우진' 팀을 시작으로 마인드 바디앤 소울, 권선홍, 승언, 황휘현밴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팀당 30분의 공연시간 동안 관객들과 많은 음악적 교감과 소통을 했고, 레드콘 제3기 뮤지션을 알리는 성공적인 무대가 되었다.

이날 쇼케이스에 방문한 약 200여명의 인디음악 매니아들에 레드콘 뮤지션 홍보를 위해 미리 준비한 뮤지션들의 앨범과 소정의 기념품을 나눠주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특히 대한민국 인디 공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홍대에서 레드콘 뮤지션들의 쇼케이스를 개최하여,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와 뮤지션들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쇼케이스를 보면 지난 4월 제3기 레드콘 뮤지션들이 선발된 이후 전라북도의 음악창작소 집중 육성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제3기 뮤지션들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도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만이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 레드콘 음악창작소 운영사업은 대중음악인들을 발굴·육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개최, 정기공연 참가 지원, 음원 및 음반 제작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선발된 뮤지션들을 집중 육성했다. /김진성 기자

수필은 곧 '삶의 철학'

행촌수필문학상에 임두환 · 김형중 · 정성려 씨 영예

임두환

김형중

정성려

제12회 행촌수필문학상에 임두환(73), 김형중(72), 정성려(60)수필가가 선정됐다.

행촌수필문학회(회장 최화경)는 최근 전주의 한 식당에서 행촌수필문학상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심사위원 호병탁·김경희)를 열고 올해 행촌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임두환·김형중·정성려 씨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호평탁 심사위원은 "수필은 향기가 있으되 진하지 않고, 소리가 있으되 요란하지 않고, 아름다움이 있으되 화려하지 않은 글이라는 생각을 견지해왔다"며 "수필의 소재는 작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얻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생활의 이야기가 수필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그 소재에 의미를 부여해야한다. 생활의 의미화, 그것이 곧 수필이고, 수필은 곧 '삶의 철학'이 되는 것이다. 그 철학은 학문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다. 생활에서 취득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쉽고 자연스럽게 글 속에 용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임두환 씨의 '똑심대장 임장군', 김형중 씨의 '하얀 흔적들', 정성려 씨의 '커피와 숭늉' 수필집은 좋은 삶을 일구어가는 사람의 소박한 글이다. 그러면서도 문학성과 예술성, 상상의 이미지를 외면하지 않는 글을 소망한다는 수필관을 제시했기에 세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수상자로 결정하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임두환 씨는 진안 출생으로 2008년 대한문학으로 등단했다. 현재 전북문협, 대한문학작가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 진안문인협회, 은빛수필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필집 '똑심대장 임장군'을 출간했다.

김형중씨는 2010년 수필시대 등단 후 한국농촌문학회 6대 중앙회장, 한국문예연구문학회 회장, 전북문협 28대 부회장, 행촌수필문학회 8대 회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어머니의 지게' 외 3권, 칼럼집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외 1권, 수필집 '하얀 흔적들'이 있다.

정성려 씨는 2011년 대한문학 등단과 함께 2018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 현재 행촌수필 부회장, 전주문협, 전북문협, 전북수필, 영호남수필, 완주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필집으로 '엄마는 거짓말쟁이', '커피와 숭늉'이 있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5시 중화산동 소재 '연가'에서 행촌수필 제36호 출판기념회와 함께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창작지원금 100만원과 고급상패가 수여된다. /김재훈 기자

부안군, 오늘부터 관광 10대 명소 사진공모전 개최

부안군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부안관광 10대 명소'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부안군의 주요관광지 10곳을 선정해 일반 관광객들에게 사진 찍기 좋은 뷰포인트(지점)를 안내해 부안의 아름다운 전경속 나를 한폭에 담을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행한다.

부안관광 10대 명소는 제1명소 채석강, 제2명소 수성당, 제3명소 솔섬, 제4명소 변산해수욕장, 제5명소 모항해수욕장, 제6명소 내소사, 제7명소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제8명소 곰소염전, 제9명소 개암사, 제10명소 직소천이다.

공모전에 제출할 사진은 부안관광 10대 명소에 대한 사진과 사진 찍은 위치를 기재해서 응모하면 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처는 blackpuca@korea.kr 이며, 출품대상은 2019. 1. 1~2019. 12. 13 기간중에 촬영한 사진으로 1인 4점이내 출품이 가능하며, 당선작은 1인 2점으로 한정한다.

당선작 발표는 2019년 12월 20일(예정)이며, 시상은 10대 명소별 대상 1명과 최우수상 1명씩 총 20명을 선발하며,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품 35만원, 최우수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5만원을 수여하게 된다.

부안관광 10대 명소 당선작이 선정되면, 10대 명소별 뷰포인트(지점)에 안내판, 뷰포인트 발판, 스마트폰 거치대, 포토존 등을 주변여건에 맞게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사진찍는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2020년 부터는 잼버리&부안관광 스탬프투어와 연계해 부안관광 10대 명소 지점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선물 보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